

2019 신년메세지 II - GO 2819!

경쟁의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온유함으로 달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1:28-30]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1. 신앙과 인생

신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실재적인 답이다. 진짜 신앙은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삶 속에 녹아있지 않은 이원화된 신앙을 '종교인'이라 한다. 그래서 종교인과 성도의 뚜렷한 구분이 '삶'이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신년 설교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예수님은 항방을 잃은 사람들에게 실재적인 답이 되셨다. 그들의 신앙이 항방을 잃은 이유는 삶과 분리되어 종교화 되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28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단순히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아니다. 수고했는데 보람이 없다는 것이다. 왜 수고하는가? 삶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노력한다. 그런데 그 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열심히 살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해결이 없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지쳐 보이고 짐이 무거워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일 때이다. 나를 제치고 경쟁에서 이긴 것 같은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경주'와 같다. 문제는 경주의 내용이 '경쟁'이라는 것이다. 나 혼자 뛰는 경주는 내 육신을 지치게 한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남과 경쟁하여 뛰는 경주이다. 이것은 내 마음을 지치게 한다. 마음이 지칠 때가 문제이다.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안에 '경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은 육의 경쟁은 결국 지치게 되어있다. 물론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은 달리다 보면 지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쳐 있는데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해결이 없는 엔진은 과부하가 된 상태로 계속 달려야 한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다. 결국은 과부하로 파열되어 더 이상 달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의 경주(경쟁), 서바이벌 경주에 지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경쟁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항방없이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달려갔던 경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다.

육의 정의는 '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육의 끝은 사망인데, 만약 끝을 보았다면 사망으로 뛰겠는가? 사망이 결정된 인생이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겠는가? 영은 무엇인가? 끝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구원'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남'이다.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즉, 끝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대한 해답을 줄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끝없는 육의 경주를 종식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2. 온유한 마음 - 지치지 않는 하늘의 경주를 뛰는 사람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경주에서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었고, 십자가 라는 목표까지 어떻게 완주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이다.

[마태복음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다. 그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이 달려도 지치지 않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과 겸손’이다.

(1) 영과 육

육의 정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육은 한계가 있다. 모든 인생은 장애물이 있다. 문제는 장애물을 넘을 실재적인 엔진-힘에 대한 것이다. 내 힘으로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영과 육의 차이는 ‘하나’이다.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육의 사람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다. 육의 엔진은 결국 ‘사망’이라는 장애물을 넘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권력이 아닌 ‘영혼’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2) 겸손과 온유함

ㄱ) 겸손 : 나 혼자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ㄴ) 온유함 : 온유함은 실재로 하나님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엔진을 말한다. 경주는 ‘힘’이 있어야 달릴 수 있다. 온유함은 나의 힘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완벽히 통제된 상태를 말한다. 내 힘이 있지만 내 멋대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다. 온유함은 사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표면적 ‘부드러움’이 아니다. 온유함은 힘 있는 야생마가 주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 힘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그 위에 안장이 있어 주인의 명령대로 그 힘을 쓸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온유함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잘 훈련된 성품이다. 탁월한 조련사에 의해 야생마에서 기품이 있는 명마로 조련된 상태이다.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주인은 너무나 완벽해서, 나를 알고 살피서, 내 힘을 분배해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3) 온유한 자가 끝까지 달릴 수 있다 - 땅을 얻는 자가 온유한 자이다.

그렇다면 온유함은 어떻게 만들어 질까? 그 마음을 알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온유함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로 내 마음이 타들어가 결국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다윗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모세의 마음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부서짐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ㄱ) 다윗

[사무엘상 30:6]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말렉이 다윗 군대의 가족들을 침탈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했다. 이 때 다윗의 심경은 큰 곤경에 빠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말렉 보다, 전쟁을 함께 치른 그의 용사들이 그를 치자고 말할 때의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타들어가는 상태이다. 그런데 다윗이 참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린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마음이 타들어 간다. 하나님의 명령 후에 달려갔던 다윗의 속도를 상상해 보라. 이 마음이 온유함이다.

ㄴ) 모세

백성들의 반역, 믿었던 형 아론이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때 모세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이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앞에 마음이 타들어 간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중보한다. 자기의 마음은 없지만 그 마음안에 반역하는 백성을 담았다. 이 마음이 온유함이다. 이런 온유함이 결국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ㄷ) 예수님

제자들의 배신, 예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과 같다 (가롯유다, 베드로의 부인, 졸고있는 제자들). 자신의 마음은 타들어가 없어지고 제자를 담았다. 결과는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완주했다. 그 사람이 베드로이고, 사울이었던 바울, 그리고 제자들이다.

(4)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 (내 힘을 부정하는 상태) - 애통하는 마음 (타들어가는 마음)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 그 사람이 결국 땅을 얻고 완주하게 된다.

온유함이 우리를 끝까지 달릴 수 있게 할 것이다.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이 탈 수 있는 온유함의 말이 되어야 한다.